

제10절 덕인2리(德仁二里)[속명 : 한송, 설방우]

1. 마을의 자연환경

마을의 남쪽은 비린들을 사이에 두고 덕인3리 웅조마을과 접하며 원양산 정상을 경계로 영덕군 병곡리와 접한다. 북쪽으로는 한송들을 경계로 덕인1리 한사티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부네골을 경계로 덕인1리 양천과 닿아있다. 동쪽으로 마룡산(馬龍山)이 있다. 서쪽으로는 칠보산 거랑을 사이에 두고 덕산3리 한실과 닿아있다. 후포리 상밤티 방향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초입에 ‘입덕문(入德門)’이라고 음각한 자연석 바위가 있으며, 이는 덕인2리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이다. 1835년까지 설바우마을에 운암서원(雲巖書院)이 있었으며, 백암 김제와 물재 손순효 선생을 배향했다. 마을회관은 2002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470년(성종 1)에 창녕 조씨(昌寧曹氏) 통덕랑공(通德郎公) 애송당(愛松堂) 조수원이 마을을 처음 개척할 때 입구(入口)에 큰 암석(岩石)이 여러 개가 우뚝 솟아있어 마을 이름을 ‘설방우’라 하였다고 전한다. 1765년경에는 강원도 평해군 근서면 한송리에 속했으며, 1808년에 강원도 평해군 근서면 굴항리로 개명한 후, 1871년에 다시 한송리로 환원했다. 1917년에 강원도 울진군 온정면 덕인리로 편제된 후, 1971년에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덕인2리로 재편되었다. 황처원이 학문을 닦던 한송정(寒松亭)이 있었다 하며, 고려말의 문신인 안축의 관동별곡에 월송정과 한송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여말에 세워진 정자로 추정된다.

3. 가구 분포

총 14세대가 거주하며 창녕 조씨(昌寧曹氏) 집성촌이다.

4. 마을의 특징

1) 마룡산(馬龍山)

온정면 덕인리와 후포면 삼울리, 금음리 사이에 있는 산으로 순(順)한 용(龍)이 엮드려 있는 모양이라 하여 만용산이라고도 하나, 옛 이름인 마로 표기된 데서 마룡산(馬龍山)이라 한다.